

메주고리에



Medjugorje

AUGUST, 2006 제34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너희를 기도, 기도, 기도하라고 부른다. 오직 기도 안에서만이 너희가 나와 내 아드님에게 가까이 할 수 있으며,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안에는 천국에 대한 열망이 생겨날 것이며, 기쁨이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할 것이고, 기도가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너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 오직 감사함을 이야기 하게 되며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너희안에서 현실이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06년 8월 25일 메시지

"신자들은 메주고리에 갈 자유가 있으며, 교회가 사목적 도움을 줘야 한다"

메주고리에 발현 재조사와 순례자를 위한 사목적 대책위 구성

바티칸시티=CNS]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의 사라예보 교구장 빈코 폴리츠 추기경은 7월24일 미국가톨릭통신(CNS)과 전화 인터뷰에서 메주고리에 성모마리아 발현 주장과 매년 그곳을 찾는 수많은 순례자들을 위한 사목적 대책을 마련키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위원회 1차 과제는 지난 1991년 해당 지역 주교들의 보고서를 재검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주교들은 "초자연적 발현이나 계시와 관련된다고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는 보스니아 주교회의 산하에서 활동하게 될 것임을 확인했다. 메주고리에 성모 발현은 25년 전 6월 25일 성모 마리아가 어린이 6명에게 처음 발현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현했다는 것으로, 해마다 수많은 순례객이 메주고리를 찾고 있다. 지역 주교는 성모 발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교황청은 발현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황청은 메주고리에 관한 주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신자들은 메주고리에 갈 자유가 있으며, 신자들이 방문할 경우 지역 교회가 사목적 도움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화신문 882호 발행일 : 2006-0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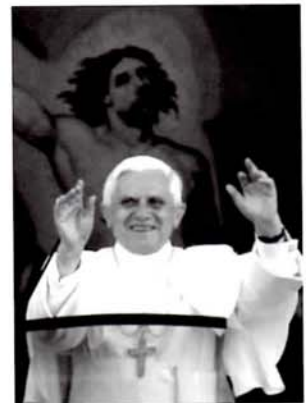
메주고리에 발현과 순례에 대한 바티칸의 입장

신앙교리성, Citta del Vaticano, Palazzo del S. Uffizio Pr. No 154/81-06419
1998년 5월 26일

"길베 오브리 몬시뇰, 썬드니 델라 호위농의 주교님께,

유고슬라비아가 여러 독립 국가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결국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의 주교회의 회원들이 본 사례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페리치 주교님이 "그리스도인 가정(Famille Chretienne)"의 사무국장에게 쓴 편지에서 주장한 "메주고리에의 발현이나 계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모스타 주교이고, 한 지역의 교구장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개인적인 확신의 표현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메주고리에로의 순례에 대해서는, 그것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끌어 진 것이라면, 아직까지 교회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건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본 신앙교리성은 그 곳으로의 순례가 허락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대주교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교리성 장관, 의장 라칭거 추기경 / 현 베네딕토 16세 교황)



(위의 내용은 현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바티칸의 교리성 장관, 의장 라칭거 추기경으로 계실 때 메주고리에 순례에 대한 길베 오브리 몬시뇰, 썬드니 델라 호위농의 주교님의 문의를 받고 회답하신 내용의 일부입니다. - 편집부 제공 -)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하신 기도지향을 위하여...
- 성모님, 어머니 마을의 모든 봉사자들을 보살펴 주세요.
- 신장병을 앓고 있는 엄마를 치유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 성모님, 저의 가족들의 영주권이 신속하게 나오도록 도와주세요.
- 주님, 권우주를 잘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도와 주세요.
- 성모님, 이 데레사의 가정과 건강한 순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아버지의 건강회복과 간호하시는 엄마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 성모님, 가족의 화목과 평화를 주시고 온 가족을 봉헌합니다.
- 암으로 투병중인 전레지나와 그의 아이들을 돌보아 주세요.
- 불쌍한 연옥 영혼들과 모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 세계 평화와 특별히 북한 중동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하여...
- 자녀를 허락하시고 프란치스코가 하는 일에 강복하소서.
- 우울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저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 암 투병중인 조광미와 그의 남편 양희정의 내적 치유를 위하여
- 성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미움과 상처를 치유해주시어 구원받게 하소서.
- 거룩한 말씀의회 회고인인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암투병중인 000와 남편의 내적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제 아내와 가족들을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에 봉헌합니다.
- 저의 병(폐암)에 대한 주님의 뜻이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위하여...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원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봉헌합니다.
- 성모님, 세 아들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 하느님, 남편과의 관면혼배가 이루어져서 가정이 일치를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 예수님, 신장병을 앓고 있는 엄마와 새 사업체를 축복해주시고 평화와 안정을 주세요.
- 성모님, 저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의 불꽃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 주님, 동생과 언니의 생활을 보살펴주시고 그 자녀들을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세요.
- 불법체류자들과 뇌종양을 치료중인 은주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 저의 가족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일치를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 메주고리에 국제 청소년 페스티벌에 참석한 순례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께 자녀들을 봉헌하오니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찬미영광 받으소서.
- 성다미아노의 가정과 아들 성수훈(아급), 성광민(요셉)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성모님, 당신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제와 봉사자를 봉헌합니다. 주님과 성모님의 뜻을 이루시고 더욱 지혜로운 길로 이끌어 주소서.
- 주님,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를 읽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소서.
- 주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인도해주신 뜻을 따르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제 아이들을 봉헌합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주세요.

-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6월과 7월 메주고리에 순례 때와 요조 신부님께서도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기도는 죽은 사람을 살려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요조 조브코 신부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사제



우리는 무화과 나무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자르려고 할 때 기회를 달라고 청합니다. 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잘려나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떠 말합니다.

유럽 교회의 신앙을 지킨 베네딕토 성인은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보고 교회와 그들을 위하여 수비아꼬에서 고행과 은둔의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분이 제시한 신앙생활의 기본과 지침은 교회와 모든 수도원들의 회칙을 만들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허물어져가는 나의 교회를 다시 세워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쓰러져가던 교회를 두고 하신 것을 깨달은 프란치스코 성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고행과 희생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온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나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이 있다 하여도 참된 사랑의 열정이 없다면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청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민의 마음으로 먼저 예수님께 용서를 청하는 겸손과 인내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버려지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는 주님께서 인간 본성에 넣어주신 선물입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무너지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없으면 장님이 되고 맙니다. 기도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체험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알게 하고 그분의 부성애를 알게 하여 주변을 변화시킬 힘을 줍니다. 사막에는 날씨도 좋고 땅도 있지만, 물이 없습니다. 그런 사막이지만 물줄기를 만들어주면 꽃이 핍니다.

현대 가정에는 행복해 질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직장과 집, 가족 필요한것을 다 갖추었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바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만능주의에 젖은 현대인의 그리스도교 가정을 쇠신시킬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

구약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야훼께서 없애려 할 때, 중재에 나섰습니다. '선한 사람들도 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십 명, 사십오 명, 삼십 명, 이십 명, 열 명의 선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러나 단 열 명의 착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 18,16-33) 선한 사람을 위해 중재에 나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위해 하느님 앞에 나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하느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청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기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세, 아브라함과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세는 사막에서 독사로 인해 백성들이 죽어가자, 야훼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먼저 용서를 청했습니다. (민수 21,4-9)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고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하여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해독제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에서 먹을 물이 없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청하자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러자 그 바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 20,1-13).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지니고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입니다.



서 은총이 들어오면, 가정은 쇠신되어갑니다. 가정은 먼저 기도의 학교가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 머물지 않으며, 지식으로 치장하지 않고 기도에 머물습니다. 새가 날며 노래하는 것이 본성이듯, 인간의 본성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일치시킵니다. 기도를 잃는다는 것은 우리의 질적인 삶의 부분을 잃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 살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닮아갑니다. 기도는 육신이 호흡하듯 영혼을 위해 신선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기도할 때 호흡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을 토해내고, 새로운 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처럼 죽은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죽은 사람을 살려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숨을 쉬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기도와 삶의 조화와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기도는 가정 안에서 늘 자신을 개선하려는 성장함을 느끼게합니다. 등잔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게으른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는 알고(마태 25,1-13)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묵주기도는 기름방울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스위스의 고고학자가 몇 천 년이 지난 피라미드에서 이집트의 씨앗을 발견하고 심어보니 발아를 해서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조건을 만들어주면 씨앗이 발아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한다면 아이들은 저절로 배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신론자가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 무신

론자의 시작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랑 :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용서와 화해를 하지 않는 사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바리사이파와 세리의 기도'(루카 18,9-14)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도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인내심 : 밭에 물을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는 돌을 고르고 갈아주고 잡초를 뽑아주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적, 외적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용서 : 잘못된 이들을 용서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 기도는 진실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하는 헛소리가 됩니다. 용서는 우리를 위한 상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받는 선물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하느님의 의지와 싸우면서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세와 의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균형 있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일치하게 하고 이웃과 일치하게 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오늘 비유의 포도원의 일꾼처럼 될 수 있다고, 능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M**

<이 내용은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주관으로 2005년 11월 달 메주구리에 있어서 있었던 요조 신부님과 4박 5일 피정 강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기사를 정리해주신 윤종식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집부 - >

그대들의 마음은 살아있는 감실

윤종식 디모데오 신부
의정부 교구 / 로마유학 전례학 박사과정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위원

1995년 9월 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의 메시지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기에, 자신들의 삶 안에 더 이상 받아 들이지 않는 봉헌된 많은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내 성심은 괴롭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모든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대들은 이 메시지를 그대들의 마음 안에서 살아있게 하고, 이해하게 함으로써, 정화된 순수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말씀과 성체는 그대들을 위해 내가 주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대들은 또 다른 이들에게 나의 생명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성심은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특별히 사랑하는 그대들에게 나의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나의 모든 사랑과 무한한 은총으로 그대들을 채워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대들을 완전히 관통하여 초기 사도들처럼 생명을 바쳐 나를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기 위해서 그대들은 진정으로 내가 주는 메시지와 성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대들은 나의 성심에 보다 더 깊이 머물며 자신의 성화와 그대들에게 맡겨진 모든 이들의 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선함과 은총을 나의 성심에서 채우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그대들의 삶이 나를 찬미하는 이들이 되도록 내가 그대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의 곁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그대들 각자를 위



해서 내가 준비한 성심의 비밀들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이들은 나의 진실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을 전하는 전파자들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나는 그대들 모두를 축복하며 용서합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곁에 머무른다면 나는 그대들을 성덕의 높은 절정으로 성숙시켜 줄 것입니다. 아멘.

1995년 10월 24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의 기쁨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인 그대들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나는 그대들이 나에게 봉헌된 때부터 그대들 삶의 모든 순간들에 충만한 은총으로 함께 살아있습니다. 그대들은 밤낮으로 나를 찬미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이들이 나를 믿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대들을 내가 줄 수 있는 많은 은총으로 채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고 있는 나와 나의 어머니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어머니처럼 늘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항상 그대들을 성체 안에서 기다리는 겸손한 나의 성심을 통하여 나는 그대들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나의 축복을 전하며 무한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1996년 6월 21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그대들이 나의 자비로움

을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대들이 나의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완전한 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나의 성심은 항상 무한한 은총을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그대들을 가득 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의 성화를 위한 이 신성한 선물을 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모으는 일은 그대들에게 맡겨진 몫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사랑의 양식인 나의 몸은 그대들의 마음을 채우고 변화시켜 세상의 모든 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그대들이 나의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진 힘과 능력을 형제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그대들이 삶의 많은 부분들을 성체 안에 현존하는 나를 지속적으로 경배하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대들은 은총의 선물들로 채워지기 위해서 봉헌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길을 충실하게 가게 위해서라면 나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

합니다. 그대들의 마음에 이러한 나의 사랑이 머물도록 받아 들이고 나의 현존과 거룩함으로 그대들의 모든 것이 채워지도록 자신을 내어놓기를 청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과 사랑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은 악과 대항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은 오직 나와 함께 할 때 있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봉헌된 삶으로 나와 내 사랑을 일관성 있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는 그대들 모두를 사랑하며 거룩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거룩함으로 가는 그대들의 여정에 동반하는 형제들과 나의 어머니를 그대들 곁에 둡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천상의 내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그대들도 완전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는 그대들을 축복하고 내 성심으로 그대들 모두를 보호합니다. 아멘. M

요조 신부님과 함께 하는 치유의 성시간



요조 조브코 신부님은 메주고리에 발현 목격자들의 지도 신부이며 성모님의 발현을 직접 본 목격증인이십니다. 또한 요조 신부님은 "데일리 가톨릭" 지의 투표에 의해 선정된 "금세기의 가톨릭 교회에 영향을 주는 스물 아홉 명의 지도자"중의 한 분이시며 수많은 내적, 외적의 기적적인 치유의 은사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이십니다. 이번 "요조 신부님과 함께 하는 치유의 성시간"에 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 하시어 풍성한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2006년 11월 6일부터 16일
- ▶ 장소 : PA 어머니 마을, 뉴욕, 피츠버그, 시카고, 마이아미
- ▶ 강사 : 요조 조브코 신부
- ▶ 통역 : 한국어 남기옥 마르타 / 영어 Nancy Latta
- ▶ 음악 : 바이올린 멜린다 / 기타 롤렌 파출라이너
- ▶ 문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 610-366-9612 Fax : 610-366-9614
E-mail : gregorynam@hotmail.com

- * 참석자들에게는 메주고리에 성모님 사진과 묵주를 드립니다.
- * 한국어와 영어권피정이 마련되어있습니다.
- * 일정에 대한 문의는 평화의 모후 선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증인들과 함께 드린 기도

미키 무사 (Miki Musa)

6월 24일 새벽 4시 30분! 미국 순례단이 십자가 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렇게 이른 시각에 산을 오르면 군중을 피할 수 있으리라 희망했지만 이미 수 많은 순례단이 산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바로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누구나 쉽게 느끼고 감지할 수 있으리라. 십자가산을 내려오니 온 세상 곳곳에서 온 수천명의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성 안토니오 성지에서 시작하여 4시간 동안 이루어진 평화의 행진 대열이 메주고리에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다. 야고보 성당 앞에서 사제들이 15분 동안의 성체조배를 준비하고 있었다. 성당 마당이 사람들로 꽉 들어 차 있는 가운데 모든



순례자들은 무릎을 꿇고 있었고, 하느님의 사랑이 그들 모두에게 흘러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순례자들이 메주고리로 들어오고 있었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에 크로아티아 해안 도시 자다르의 순례단을 태운 8대의 버스가 눈에 들어왔다. 야외 제단에서 거행된 저녁 기도 예절 모습이 장관이었다. 약 5만 명 정도 모인 것 같았다. 목주기도와 성모호칭기도, 성령께 드리는 기도를 바친 후 미사가 시작됐다. 이 반 두간디치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면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께로' 라는 주제로 강론을 했다. 다섯 명의 발현 목적 증인들이 제대 앞으로 나가 마니피캇과 사도신경 그리고 일곱 번의 주모경을 바쳤다.

9시경 목적 증인들과 함께 영광의 신비 5단이 바친 후, 성모님 메시지를 낭독하고 성모님에 관한 노래들을 불렀다. 내가 보기에 이번 주말 이틀 동안 10만 명 정도의 순례자들이 함께 할 것 같았다. 공식적으로 침상이

3만 개나 되는 메주고리에의 모든 숙박 시설들은 동이 났다. 메주고리에 주변의 모든 호텔들 역시 자리가 없었다. 어떤 순례자들은 발현 초기 때처럼 사라예보, 모스타르, 네움과 같은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다. 많은 순례자들이 하룻길 순례로 메주고리에를 찾았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텐트에서 밤을 지새고 있었다. 어쨌든 기자인 내 친구가 크로아티아 텔레비전 뉴스에서 말했듯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피부색이 다른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만 명의 사람들 모두가 누구에게나 익숙한 언어인 기도라는 언어로 하나가 되었다. 6월 25일, 기념일이다! 거리의 소음 때문에 새벽 5시에 잠이 깬 아내를 지금

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들은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 기념일에 함께 하기 위해 밤을 새워 걸어온 순례자들이었다. 그들은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드님께 중재해 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약 400 마일을 걸어왔다. 7시 저녁 미사뿐만 아니라 오전 5, 6, 7, 8, 9시 그리고 11시에 크로아티아어 미사가 있었다. 한 미국 순례자는 모든 시간 미사 때마다 성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내게 말해주었다.

아름다운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 화씨 110도를 예상하게 했던 메주고리에의 작은 마을에 이처럼 많은 순례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행이 순조로웠다. 저녁 기도 예절은 평소와 같이 진행되었으며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존경 받는 신학자인 토미슬라브 이반치치 신부의 강론을 들었다. 미사가 끝난 후 5명의 발현 목적 증인들이 성모님의 메시지를 낭독했다. 성모님께서 우리

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지만 말은 적게 합니다" 라는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말을 사제가 인용한 것을 기억한다. (비록 내가 분명하게 적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은 벗어나지 않았다고 믿는다

Spiritual Preparation - Novena

성모님 발현 25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9일간의 준비 기도(Novena)가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메주고리에 주민들과 세계 각지에서 온 많은 순례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현산에서 거행되었다. 매일 오후 4시에는 모든 순례객들이 Franciscan 사제들, 발현증인들과 같이 발현산을 오르면서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봉헌하였다. 9일간의 준비 기도(Novena)기간 동안, 저녁미사를Franciscan 사제들이 James 성당에서 집전하였다.

Peace March

평화 행진이 세례자 요한 축일에 (6월24일) Franciscan 수도원이 위치하고 있는 Humac부터 James 성당까지 장엄하게 거행되었다. 이 행사는 1992년부터 거행 되고 있다. 이 행사에는 약3000명의 순례객들이 아침6시에 Franciscan 수도원에서 기도와 강복을 받은 후, 4시간 동안 십자기를 앞세우고 묵주기도와 성가를 합창하면서 행진하여 James성당에 아침10시에 도착했다.

Vigil

성모님 발현 25주년 전야제 행사가 약25000명의 순례자들이 참석한가운데 6월24일 저녁6시부터 자정까지 James성당에서 미사와 저녁 program이 거행되었다. 미사 후 9시부터 10시까지 발현증인 Ivanka, Jakov, Mirjana, Marija & Ivan과 함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며 10시부터 자정까지는 성시간이 있었다. 성체 강복 후, 성체를 성당 안으로 옮겨서 다음날 아침 첫 미사 전까지 성체현시를 했다. 전야제날 수많은 현지의 지방 순례자들은 신을 벗은 채 맨발로 걸어서 James 성당에 도착했다.

Anniversary

6월24일과 25일에 수 많은 사제들이 성당 밖 고해소와 성당주변의 뜰에서 순례객들에게 고해성사를 주었다.



성모님 발현25주년 기념일 미사가 Croatian언어로 아침 5시, 6시, 7시, 8시, 9시, 11시 그리고 오후4시에 집전 되었고, 아침에는 16개국의 언어로 미사가 집전되었다. 저녁 예절도 각 나라 언어로 동시통역 되었다. 저녁 감사 미사는 세계 각지에서 순례 온 322명의 사제들이 공동 집전 하였다. 전야제, 기념일 미사에 약 50,000명의 순례객들이 성체를 모셨다.

The 17th International Youth Festival

8월1일부터 6일까지 세계 50여 개국에서 약 30,000여 명의 젊은이들과 265명의 사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올해의 theme은 시편 119:105에 있는, Your word is lamp to my feet and light to my path 이었다. 올해 행사에는 레바논 젊은 친구들이 전쟁으로 참석을 못해서, 참석한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아쉬워했다. 8월1일 저녁 개회 미사 후, 2일부터 5일까지 매일 아침 9시-12시까지 아침 기도 및 강연이 찬양율동과 노래로 이어지면서 진행되었고, 낮 12시부터 4시까지는 휴식을, 오후 4시부터 5시30분까지는 아침과 같은 순서의 오후강연이 있었으며, 오후 6시부터는 저녁예절과 함께 행사가 진행되었다. 저녁행사 첫째 날은 성체 강복 전 성시간이 있었고, 둘째 날은 성시간 후 Concert of spiritual music, 셋째 날은 미사 후 십자가를 모시고 메주고리에 마을 2km를 행사에 참석한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 도보로 행진하였다. 행진 후 성시간을 갖고 현시된 성체를 성당 안에 모시고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침묵 중에 거행하였다. 넷째 날은 미사 후 체나콜로 공동체에서 Musical을 공연하였고, 다섯째 날은 성시간과 함께 Singing farewell 있었다. 8월6일 새벽 5시에 십자가 산에서 Youth Festival을 마감하는 파견 미사가 집전 되었다. 모든 행사 중에 사제들이 계속해서 고해성사를 집전하였다.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 메주고리에 오는 이유는 이곳에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기 때문이다. M

자녀다운 말김의 정신으로

1976년 7월 16일.

가르멜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기념일)



이 엄마의 총애를 입고 있는 아들이야, 주변 사물이나 변천하는 인간사 때문에 마음 흩어지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는 참 엄마로서 네게 모든 것을 안배해준다. 이를테면 네가 만나야 할 사람, 몸담고 있게 될 환경, 네가 해야 할 일 같은 것 말이다. 신뢰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습관을 길러라.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순간이요, 이 엄마가 내게 마련하는 순간이다.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한 아들들아, 너희는 모두 아들다운 말김의 정신으로, 이 엄마의 활동을 더없이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내 성심에 자기를 봉헌하는 사제는 내 사랑을 그에게로 끌어당긴다. 이 사랑은 더욱 힘차고 뚜렷해진다. 그래서 영혼은 점점 더 명확하게 이 사랑을 감지(感知)할 수 있게 된다. 너희와 함께 라야 내가 엄마의 역할을 더 완전히 할 수 있다. 너희와 함께 과연 그렇게 하고 있으니,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함으로써 너희가 그야말로 작은 아기들이 되어 내 팔에 안겨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면 너희는 내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진다. 이끌어주는 대로 내게 맡긴 채, 순하게 따라오게 된다.

나 자신의 덕행으로 너희를 옷 입히고 내 양식으로 너희를 먹여 기르면, 너희는 이 엄마의 활동이 풍기는 향기에 더욱 더 내적으로 이끌리게 된다. 너희를 작고 가난하고 겸손하며, 단순하고 순결하게 해주는 활동인 까닭이다. 나는 특히,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체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내 아들 예수님의 신적 위격 앞으로 너희를 부드럽게 이끈다. 그러면 너희는 내게서 점점 기도에 맞들이는 법을 배우게 된다. 흠숭과 감사와 보속의 기도이다.

너희 가운데 성체로 현존하시는 내 아들 예수님을 저버림과, 침묵의 냉랭함이 들러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사랑하는 아들들의 목소리를 그만큼 더 모은다. 그들의 목소리를 내 목소리와 합하여 이 세상에서도 사랑의 화음을 이룸으로써, 내 아들 예수 성심께 위로로 바쳐드리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비하고 있는 군대, 이제 세상 곳곳에서 모으는 내 사제들의 군대이다.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한 어린이들의 숨은 군대로서 점점 더 나를 닮아가게 하리니, 이를 예수께서 보상과 속죄의 징표로 아버지께 제현하시게 될 것이다. 따라서, 거듭 당부하거니와, 갈수록 번져나가 어디서나 흘러 넘치는 갖가지 악을 살피려 들지 말아라. 또 사탄이 교회 안에 마구 퍼뜨리는 엄청난 악도 살피지 말아라.

오로지 나를, 그리고 이 너희 엄마가 침묵 속에서 행하고 있는 크나큰 선(善)만을 눈여겨 보아라. 내 아들 사제들을 갈수록 많이 티없는 내 성심으로 끌어당기면서 내가 행하고 있는 선 말이다.(...) **M**

(이 메시지는 파티마 성모님께서 1973년부터 1997까지 스테파노 고펀비 신부님에게 내적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성모님의 승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오상환 요셉 수사신부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가톨릭 교회를 사랑하지만 사람인 성모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부족한 제 믿음을 탓하면서도 혹시 성서적인 근거를 알 수 있다면 더욱 열심한 신앙생활로 보답하겠습니다. - 뉴저지 이데레사 -

"성모님이 승천하신 성서적 근거"

"티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 조금도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으며, 지상 생활을 마치신 후에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으시어 주님으로부터 천지의 모후로 추대 받으셨다. 이로써 마리아는 다스리는 자들의 주님이시며,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신 당신 아드님을 더욱 완전히 닮게 되셨다." (교회 헌장 59항) 라고 재반포 하였습니다. 성모 승천 교리는 성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회칙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 에서 성모 승천의 성서적 근거로 창세기 3장 15절, 탈출기 20장 12절, 이사야서 60장 13절, 시편 132장 8절, 45장 10절, 45장 14, 16절, 아가서 8장 5절, 루카 1장 28절, 묵시록 12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들 성서 내용 중 특히 창세기 3장 15절은 성모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함께 참여 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또 요한 묵시록 12장은 해를 입고, 달을 밟고, 별이 12개 달린 월계관을 쓰고 천상에 오르신 성모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이 회칙에서 "마리아는 그리스도와 가장 밀접하게 결합해 운명을 같이 했고 죄가 없으므로 부활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이의 부활에 대한 성서적 근거이듯이 원죄 없으신 구세주의 모친 마리아님 (루카 1:28)의 부활과 승천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마리아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은총

을 충만히 받은 분임을 드러내는 교리입니다. 성모님의 승천 축일을 초대부터 지내온 교회는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원죄 없이 잉태 되었고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평생 동정으로 살았으며, 아들의 구원 사업에 충실히 협력했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모님을 당신 부활과 승천에 참여시켰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한마디로 성모 승천은 성모님의 덕성과 역할, 특권 등을 종합한 가톨릭 교회의 성모님께 대한 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서, 하느님의 아들이로서 부활하시고 승천 하셨지만 성모님은 들어 올림을 받으셔서 그리스도님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므로 당신의 능력으로 승천하셨으나 성모님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부르심을 입고 비로서 승천할 수 있었기에 이를 예수님의 승천과 구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덧붙여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마찬가지로 성모님의 승천이 나타내는 '하늘'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모승천은 성모님께서 지상 생활을 마치신 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누리시는 충만한 영광에 들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모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은 우리 자신의 부활 신앙, 즉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을 견고케 해 줍니다. 성모님의 승천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도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셨던 성모님의 모습과 그 순명에 응답하시듯, 성모님을 정녕 복 받은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던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모님의 삶에 직접 동참하도록 초대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M

<원죄 없으신 성모기사 월보 2006. 8>

이 페이지는 독자님들이 평화의 모후 선교회로 문의 하시는 질문들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을 선교회로 보내 주시면 다음 호에 기재하도록하겠습니다.

Tel. 610-366-9612 / Fax 610-366-9614 E-mail gregorynam@gmail.com

사도 요한이 본 성모 마리아의 승천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Il Poema dell'Uome-Dio)

몇 일이 지났을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생명이 없는 육체 둘레에 화관을 이루고 있는 꽃들을 보고 판단한다면 몇 시간이 지났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싱싱한 꽃들을 받치고 있는 올리브 나뭇잎들이 시들었고, 뚜껑 위에 유물들처럼 놓여 있는 다른 꽃들이 시들어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하자면 벌써 여러 날 지났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성모님의 시신은 숨을 막 거두신 때와 똑같다. 그 얼굴과 작은 손에는 아무런 죽음의 표도, 불쾌한 냄새도 없다. 오히려 백합꽃, 장미꽃, 은방울꽃과 여러 가지 산 풀이 섞인 아름다운 향기가 감돌고 있다. 며칠 째 밤샘을 하고 있는 요한은 피로를 못 이겨 잠이 들었다.

갑자기 큰 빛이 그 방안을 가득 채운다. 거의 인광(燐光)과 같은 파란 빛을 띤 은빛이 도는 빛인데, 그 빛은 점점 더 강해져서 새벽빛과 등잔 불빛을 보이지 않게 한다. 이 빛은 하느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의 동굴을 가득 채우고 넘쳐 흘렀던 빛과 같은 빛이다. 그런 다음 이 천광 광채 속에 천사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것은 몹시 강한 처음의 빛보다도 한층 더 찬란한 빛이다. 천사들은 작은 침대를 화관과 같이 둘러싸고 그 위로 몸을 숙여 움직이지 않는 시신을 들어 올리면서 날개를 더 세게 흔들고 큰 소리를 낸다. 마치 예수님의 무덤이 기적으로 열렸던 것과 같은 기적으로 지붕에 큰 구멍이 생기고 모후의 시신을 하늘로 모셔간다. 잠이 들어 있던 요한은



큰 빛과 천사들의 목소리와 웅장한 소리의 세찬 통풍(通風) 때문에 잠이 깼다. 사도 요한은 잠이 아직 덜 깬 상태에서 비어 있는 침대와 지붕의 구멍을 보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니 아직 자고 있는 사람 같은, 생명이 없는 성모님의 몸이 천사들의 무리에 떠받치어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보인다. 하늘로 올라가는 성모님의 몸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요한에게 이제는 떠오른 햇빛에 둘러싸인 성모님이 당신의 육체에서 영혼을 갈라놓았던 탈 혼에서 깨어나 다시 살아서 일어 서시는 것을 분명히 본다. 이제는 성모님도 이미 영광스럽게 된 육체 특유의 은혜를 누리시는 것이다. 요한은 사람의 글이나 말, 혹은 어떤 예술작품으로도 결코 묘사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 광경에 넋을 잃고 보고

있다. 역시 찬란한 빛에 둘러싸여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당신의 어머니를 가슴에 꼭 껴안으시더니 당신이 내려오셨던 곳으로 함께 올라가신다. 여기서 요한이 보는 광경은 끝났다. 그의 얼굴에서는 성모님을 잃은 슬픔과 함께 영광스러운 성모님의 모습을 본 기쁨을 엿볼 수 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흘 동안이나 잠을 못 잤지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성모님의 승천하심을 보려고 깨어 있고 싶었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습니다. 성모님은 멀리 계셨지만 영광스럽고 찬란해지셔서 마치 아주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다시 뵙게 해주시다니요!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당신의 요한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이며 선물입니다! 당신 어머니 곁에 계시는 주님을 뵙다니! 주님은 해와 같으시고 어머니는 달과 같으시며, 두 분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영원히 다시 결합하신 행복으로 일찍이 들은 일이 없을 만큼 찬란하신 두 분을 뵙다니! 오! 천상 예루살렘의 가장 큰 천체이신 두 분이 함께 빛나고 계시는 천상낙원의 천사들과 성인들의 기쁨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거룩하더라도 역시 피조물인 인간이 최후의 심판과 육신의 부활 후, 영과 육체가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되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의심할 사람이 많을 것이니 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만 하나님이신 당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어머니도 돌아 가신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영혼과 육신이 다시 결합하신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 당신 아들 곁에 자리잡으셨다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모두 세상 마칠 때에 육신이 부활하는 것과 영혼과 육신의 영원한 생명, 성인들에게는 지극히 행복할 것이나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끔찍한, 영원을 믿으시오. 예수님과 성모님의 거룩하신 삶을 본받아 그분들과 같은 은총을 누리도록 하시오. 나는 그분들의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으며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언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다시 감사드립니다!"

요한은 뚫어진 지붕을 쳐다 보면서 외친다! "또 다른 기적! 예수와 성모님 생애의 기적 중에 또 다른 기묘한 조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부활하셔서 당신의 뜻만으로 무덤의 돌을 쓰러뜨리셨고, 하늘에 올라 가셨다. 사람의 딸이신 마리아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하늘에 올라 가셨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완전한 능력으로!..."

요한은 이제 침대에 남아 있는 꽃과 잎들을 어떤 천에 담고, 밖에서 모아온 꽃과 잎들도 함께 넣어 궤의 뚜껑 위에 올려 놓는다. "이제는 내가 할 일도 다 끝났으니 하

느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마음대로 가야겠다. 가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자. 사람들이 사랑과 그 힘을 믿도록 가르치러 가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분이 하라고 명하신 영원한 제사와 그 성사의 의미를 통해 우리는 성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과 결합할 수 있고, 그 은총은 우리가 세상을 마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완전한 사랑으로 그 분이 주시는 선물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 그들도 그분을 믿고 사랑하게 해야 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얻어 낸다.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해야 할 예수님과 그분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 않게 되었으니, 여러 민족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러 가겠다. 사랑만이 나의 무기이며 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마귀와 이교(異教)를 이기고 많은 영혼을 얻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이셨던 예수님과 마리아를 계승하겠다." **M**

<이 기사는 마리아 발도르따 (Maria Valtorta)가 쓴 '하느님이시요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시' 10편에 있는 성모님의 승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부->

게시판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주소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Queen of Peace Missionary
(평화의 모후 선교회)

1565 Brookside Road
Macungie, PA 18062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죽음이 두렵지 않은 탈북자들의 생활

김기수 신부

맨하튼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주임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사제

집안에 들어가서 탈북자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가 52세라고 하는 자매님의 모습은 60세도 훨씬 더 들어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이였다.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온 이자매님의 이름은 김00인데, 남편은 6년 전에 굶주림으로 사망했고, 큰 아들은 군대에 들어갔다가 평양근처에서 근무했는데 지난 해 4월 달에 무슨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어떻게 죽었고 어디에 묻혔는지 여비가 없어 지금까지 가보지도 못하였다고 흐느껴 울기 시작한다. 둘째 아들도 군대에 나가 있고, 집에는 20살 된 막내만 남아있는데, 집에 식량이 없어서 막내가 식량을 구하러 나간 사이에 몰래 집을 나왔다고 했다. 생활이 어려워 지난해에는 살던 집도 팔았고, 지금은 남의 집 방 한 칸을 빌려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나와야 한다고 했다. 청진시의 어떤 아주머니가 2년 전에 중국에 와서 어느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중국에 오기로 결심하고 함께 무산까지 기차로 왔는데, 그 아주머니는 무산에서 병이 나서 함께 못 오게 되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2년 전에 중국에 와서 나에게 도움을 받아간 아주머니였던 것 같다. 무산에서 다른 아주머니를 만나 함께 강을 건너오려고 강가로 나가니 경비대가 잡아서 옷이 너무 더럽다고 가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다시 무산으로 가서 자기는 어느 집에 가서 옷을 빌려 입고 나왔는데, 다른 아주머니는 옷을 빌리지 못해서 못 오고 자기만 3일 동안의 기간 안에 돌아오라는 허락을 받고 건너왔다고 한다. 요즘에는 경비가 심해서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혼자 이렇게 결심을 했는가 물으니,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어 죽기를 각오하고 왔단다. 경비대에게



얼마를 주고 왔느냐고 물으니, 건너올 때 중국 돈 100위안, 돌아갈 때 100위안을 주기로 했는데 건너 올 때는 돈이 없어 돌아갈 때 200위안을 주기로 했단다.

현수가 옆에서 비디오를 찍으니, 무서워서 나를 붙잡고 자기는 두 아들이 있어서 살아야 하니 사진을 찍지 말아달라고 애걸한다. 내가 우리는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니 염려 말라고 안심을 시켜도 불안해한다. 우선 뉴욕에서 올 때 이벨라렛타 자매님께서 주신 여자속옷을 주고 입으라고 하니 죽기를 작정하고 왔다는 분이 옷 갈아입는 것은 부끄러워 망서린다. 여자들은 그런가? 방이 한 개 뿐이라서 방 중간을 미닫이문으로 분리했다.

한쪽 편에는 주인집 식구들이 있어서 우리들은 모든 말을 귀속 말로 속삭이며 말해야 했고, 옷도 우리들이 있는 방에서 갈아입어야 했다. 그래서 먼저 옷을 갈아 입어야 옷 속에 돈을 숨길 수 있다고 하니 방 한편 구석에서 얼굴만 돌리고 옷을 갈아입는다. 빌려 입고 왔다는 옷들이 이 정도니, 처음에 입고 있던 옷은 어땠을까? 다 떨어진 바지를 벗고 내의를 입고 우리들이 가지고 온 새 바지를 입으니 꼭 맞는다. 속내의도 없이 다 떨어진 훌바지만 입고 있었다. 위에도 구멍이 숭숭한 쉼타에 얇은 홀 잠바만 입고 있었다. 양말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신으나마나 한 양말이었다. 이런 옷차림으로 영하 20도 추위에 수 십리 길을 걸어왔다. 어떻게 죽지 않고 왔을까? 현수가 도와줘서 옷을 입은 후, 북한에서 얼마나 있으면 집을 사는가 물으니, 중국 돈 2,000위안이면 살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중국 돈 2,000 위안을 푼푼 말아서 내 손수건을 찢어서 썬 다음 아주머니의 허벅지에 잘 매라고 알려주었다. 다른 한쪽 다리에도 1,000위안을 매어주고 절대로 이것은 빼앗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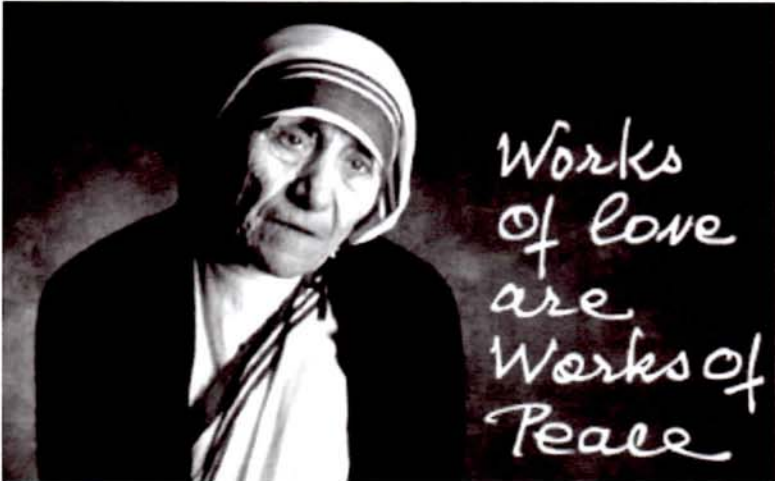
안 된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또 1,000위안은 500위안씩 나누어서 잠바 주머니에 넣으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누구에게 혹시 잡혀서 돈이 있는가 물으면 500위안만 있다고 보여주라고 단단히 알려주었다. 그리고 경비원에게 줄 200위안을 따로 넣어주었다. 혹시 주인집에게도 나한테 돈을 얼마나 받았는가 물으면 500위안만 받았다고 말하라고 알려두었다. 그리고 영양제, 해열제, 등을 챙겨주었다. 그러자 이 아주머니는 나의 발을 붙잡고 흐느껴 울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수십 번도 더 하더니, 자기 동네에 가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식량을 사서 나누어 먹어도 되는가 묻는다. 나는 괜찮은데, 자매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가 물으니, 그들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 그렇게 나누어 먹고 싶은데, 혹시 그들이 어디에서 돈을 구했는가 물으면 나의 이야기를 해도 되냐고 묻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받은 돈 외에 조금이라도 더 받을까 궁리를 하는데, 자신에게 준 돈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생각부터 하는 이 아주머니의 착한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온 천주교 신부이고, 이 돈은 미국의 천주교신자 동포들이 북한의 어려운 동포들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설명해 주면서 통일이 되면 잊지 말고 천주교 신자들에게 감사하고 신자가 되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식량을 사서 나누어 먹어야 할 이웃들이 누구인가 물으니, 가장 어려운 4가정의 이름과 가족들의 사정 이야기를 들려준다. 정말 다 비참한 형편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중국 돈 1,000위안을 꺼내어 주면서 그들에게 꼭 식량을 사서 나누어주라고 당부하였다. 자매님은 그 돈을 500위안씩 나누어서 양말 속 발바닥에 넣는다. 나는 그러면 걸을 때 발이 아프니 옆에다 넣으라고 하니, 괜찮다고, 이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발바닥에 넣는다. 아주머니는 우리를 만난 처음부터 헤어질 때까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헤어질 때에는 말도 못하고 목이 메어 숨이 넘어갈 것 같다. 가지고 간 초콜렛과 사탕을 전해주고 밖으로 나와서 주인집 아주머니

에게 수고했다고 중국 돈 200위안을 주면서, 저 아주머니가 저녁을 따뜻하게 잘 먹고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떠나올 때 두려워 떨던 현수를 보고 오늘 여기에 오기를 잘했지 않느냐고 물으니, 잘했다고 대답한다. 아까 그 아주머니가 흐느껴 우실 때 슬프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현수는 그런 것은 잘 못 느꼈다고 한다. 세대차이인가? 내 마음이 너무 여린가? 나는 속으로 그 아주머니와 함께 계속 흐느껴 울었는데... 나도 현수처럼 이렇게 태평하고 단순하게 살았으면... 화룡까지 와서 버스를 타고 언길로 오는데, 날이 어두워졌다. 그 아주머니가 잘 갔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 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 아주머니가 잘 갔는가 물으니, 저녁을 먹고 집 주인 아저씨가 경운기로 강가에까지 태워다 주었다고 한다. 그 아주머니에게서 수고비를 또 받지 않았는가 물으니, 받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그 동안 탈북 동포들을 등쳐먹는 조선족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해야 안심이 되었다. 오는 길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나,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느냐?”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 오직 하느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귀한 생명이 아닌가? 무슨 대가를 치루더라도 생명은 꼭 살려야 하는 것이 창조주께 대한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오늘은 참으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안식일이었다. **M**



캘거터의 마더 데레사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오르는 기도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참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땅에서 하늘을 향해 오르는 단 하나의 기도 소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할 때가 되었지만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을 고요히 하여,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기도하시도록 내맡깁시다. 내가 말을 못하면 그분이 아버지께 말씀하실 것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그분이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 안에 계십니다. 저에 대한 그분의 충실하신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기에, 우리가 그분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는 그저 우리의 무력함을 드리도록 합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도록 예수님께 청합시다. 왜냐하면 그분보다 아버지를 더 잘 아는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 지 모르기에 성령을 보내시어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보다 더 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맑다면,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또한 내 마음이 살아 계신 하느님의 거처라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이는 성 바오로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서 기도하시며,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생각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눈으로 보시며, 내 언어로 말씀하시고, 내 손으로 일하시고, 내 발로 걸으시고, 내 가슴으로 사랑하십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아무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이루시는 일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드님을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내맡깁시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베풀며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쓰시도록 그분께 모든 권한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사시도록 허락해 드

리는 것,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허락해 드리는 만큼 더욱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맡겨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 한 가운데에서 관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때 비로소 우리는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사랑 받지 못하는 사람들, 거부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루 종일 그분 안에서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 가장 보잘 것없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은 곧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M**

"우리 아버지, 당신의 자녀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아버지의 뜻대로 쓰시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온 세상에 예수님을 계속 보내 주십시오. 아버지에게서 받으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시도록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샘터에서 생기를에서 발췌>

메주고리에 발현 25주년 메시지

리유보 신부 <메주고리에 본당>

“사랑하는 자녀들아! 요즘 들어 너희가 내 지향들을 위해 바친 모든 기도로 인해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고마워하는지 모른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절대 후회하는 법이 없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큰 은총으로 보답해주실 것이고,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까이 있고, 지나간 시간 동안 (25년 동안) 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기며 거룩함과 평화를 선택한 모든 이에게 감사한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다.”

2006년 6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성령과 믿음 안에서 지난 25년을 뒤돌아보면, 성모님께서는 거룩한 땅 메주고리에를 통하여 열린 천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위대한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보내시어, 당신 백성과 교회를 잊지 않으신 천상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성녀 엘리사벳처럼 탄성을 저절로 올리게 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방문해 주시다니요?” 성모님께서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 나는 그분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 내가 온 것이다.” 성모님은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말씀의 진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모두 나에게 와서 마시고 나를 믿어라. 그로부터 생명수가 흐를 것이다.” 생명수는 실제로 예수님의 성심에서 흘러 나와 이곳 메주고리에에서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통해 통회하고 속죄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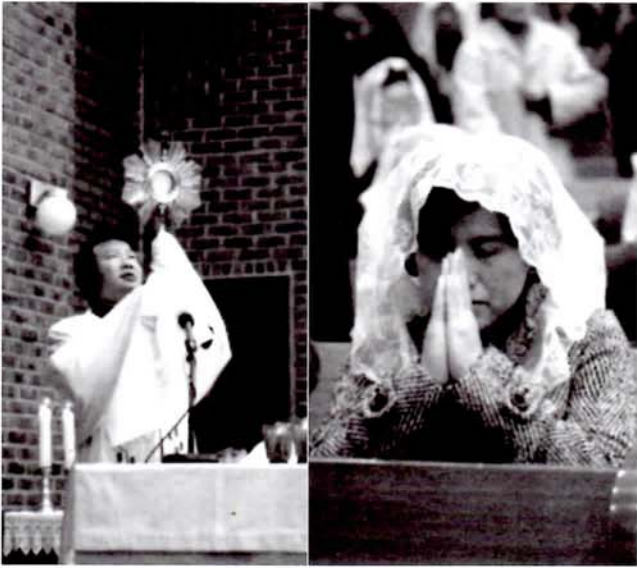
정결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25주년 발현기념일을 맞아 정말 죄의 길을 버리고 거룩함과 회개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께서는 임종 직전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들도 이런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는 오늘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생명의 충만함과 영광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을, 어머니로 믿어주고 삶의 여정의 변호자로 받아들인 모든 이들과 기도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이십니다. 그 분은 삶에서 오는 기쁨을 앗아가시거나 보상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해 질 수 있으며 그분은 모든 봉헌과 희생에 대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말을 듣고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이것은 씨앗을 가지고 있지만 밭에 뿌리지 않아서 추수를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많은 메시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메시지들을 삶에서 실행하면서 생활을 통해 증거하여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오고 폭풍이 불어 치면 그 집은 무너져 큰 해를 입는다.” 동정마리아의 메시지들은 모성의 언어로 단순화시킨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사랑을 담은 그분 마음의 말씀이십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성모님께 다가갑시다. 우리 삶의 집, 우리 가족의 집이 단단한 바위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M

주님,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지음
신경남 신부 옮김



1) 예수님! 저는 당신을 흠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흠송하고, 당신을 믿으며,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느님이시고, 저희가 가장 믿을만한 분이시며, 모든 찬미와 사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 저는 당신을 흠송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침묵 중에 이 기도를 반복해서 바친다.)

2) 예수님! 당신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당신을 통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전능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저는 당신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당신을 흠송하며, 당신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지금 당신께 귀 기울이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예수님! 제 마음에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침묵 중에 이 기도를 반복해서 바친다.)

3) 하느님 아버지와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신 당신의 성령이, 세상 창조 때부터 활동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지금 내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분께서 제 마음의 토양을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돌과 가시, 그리고 당신 말씀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뿌리를 깨끗이 뽑아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주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소서!
(침묵 중에 이 기도를 반복해서 바친다.)

4) 저는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여! 이 성시간 동안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계시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아드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값진 진주와도 같은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 안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오, 마리아여! 당신 아드님의 말씀이 언제나 제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해주십시오.

- 마리아여!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침묵 중에 이 기도를 반복해서 바친다.)

오 마리아여! 당신께서 그러셨듯이 당신은 제가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그 이유를 메시지에서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의 가정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라고 너희에게 요청한다.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성경을 좀 더 자주 읽고,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다" (1984년 10월 18일)

- 마리아님! 저는 이제 당신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주십시오.

결심합니다. (침묵 중에 집 안 어디에 성경을 놓을 곳과 성경을 항상 지니겠다는 결심을 한다.)

5) 주 예수님! 저는 이제 가정의 부모들과 어른들에게 말씀하시도록 당신께 간청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당신의 말씀을 존경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이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무엘 상권에는 저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참고 1사무 3, 1-10)

-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저희의 모든 가정이 당신의 말씀에 문을 활짝 열게 해주십시오!

(조용한 침묵 중에 이 기도를 반복해서 바칩니다.)

6) 예수님! 당신께서는 사도들에게, 또 당신 교회에 말씀을 주시면서,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당신을 흠송하고,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서 교황, 모든 주교들, 사제들, 교리 교사들, 특별히 저희 본당의 사제들과 그를 돕는 모든 이들을 당신 앞에 봉헌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그들이 항상 당신의 말씀에 모든 우선권을 두게 해주십시오.(...) (침묵 중에 본당 사제, 그의 조력자와 교리 교사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다.)

7) 예수님! 당신의 말씀은 진리요, 빛이시기에 당신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땅 끝, 모든 민족들과 모든 나라들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선교사들에게 당신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그들의 선포하는 모든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께 열게 만드는 구체적인 표정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선교사들과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침묵 중에 기도한다.)

8) 예수님! 오늘날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그리고 영화의 소리가 있고, 다른 많은 수단들이 인류를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폭력을 조장하고, 성적 문란을 부추기며, 그리스도교적인 윤리를 파괴하려고 통신 수단을 남용하는 이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그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당신 진리와 평화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당신께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침묵 중에 양심 성찰을 하고, 우리 자신의 삶과 가정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결심한다.)

9) 예수님! 특별히 말(말의 홍수)과 정보와 이미지들에 의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씀에 고무되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침묵 중에 우리 가정, 공동체, 본당의 청소년,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특별히 하느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면서 기도한다.)

10) 축복

예수님, 지극히 거룩한 주님이신 예수님! 지금 저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제 영혼을 치유시켜 주소서.(...) 거룩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어 그들의 몸과 영혼을 치유시켜 주십시오. 제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세세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M**



이 기도문은 슬라브코 바르바르치 신부님께서 약 20년간 메주고리에 본당의 성시간을 인도하였던 기도문 모음집인 "Adore My Son with Your Heart!" (마음을 다해 내 아들을 흠송하여라) 중 일부입니다.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발행되었으며 미국과 한국의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전국 성바오로딸 및 성바오로 서점, 혜화동 가톨릭 서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김훈 율리아노 율김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경 묵상 : 시편 22, 6-9, 15-17

당신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고 당신을 신뢰하여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이 아닌 구더기 사람들의 웃음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어 댁니다.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자를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 내시겠지.” 저는 물처럼 옆질러지고 제 뼈는 다 어그러졌으며 제 마음은 밀초같이 되어 속에서 녹아 내립니다. 저의 힘은 용기조각처럼 마르고 저의 혀는 입 속에 들러 붙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음의 흠에 앉히셨습니다.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저를 둘러싸 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묵상기도 :

예수님! 베로니카를 만나 얼굴의 피땀을 씻은 후 끌고 다 언덕길을 오르시던 주님은 기력이 더욱 떨어지시어 또 넘어지셨습니다. 악당들은 넘어지신 주님께 더욱 분노했고 채찍질로 십자가의 길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선 오로지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 다시 일어나 걸으심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저는 여러 번 죄에 빠져 넘어졌고 다시 일어났지만 오래 못 가고 또 넘어지기를 되풀이 해왔습니다. 이제 저도 마음을 바로 잡아 올바르게 걸어가려 하니 저의 결심을 굳혀주소서! 주님의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하는 이 7처에서 특히 메주고리에에서 새 삶을 시작한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은 과거에 비정상적 악습과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나 은총의 땅 메주고리에에서 새로이 태어나 올바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들이 옛 악습에 빠져들어 다시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어느 악의 세력도 이들을 유혹

하지 않게 보호해주소서!

성모님! 어머니께서 발현하시어 끊임없이 저희들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다시 일어났으며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발현 기념일까지 본당 전체가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너희 자신을 완전히 의탁했다는 표정을 보여주라고 너희를 부른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완전히 지쳐 있다는 것을 알지만 너희는 나에게 너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 이 시기 동안 너희 자신을 나에게 완전히 맡겨다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다.” (1985년 6월 13일)

성모님! 메주고리에 본당의 신자들과 모든 순례자들이 생활전선에서 지치지 않게 해주소서. 설령 지쳐있더라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모님의 사랑이 저들의 모든 피곤을 넘어서 활기를 되찾게 해주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 8처로 향하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M**



내적치유를 위한 기도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선과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
당신께 감사드리오며 청하오니
제가 드리는 흠송과 찬양을 받으소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빛이시며
진리이시고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으며,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오신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자녀로서 당신 앞에 엎드리나이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제 삶 안으로 당신이 들어오시기를 청합니다.
제 마음과 생활 속에서 생겨난 모든 상처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 또한 제가 범한 죄들과
다른 이들이 제게 범한 죄들을 알고 계시는 당신은
저의 부족함과 죄들을 낱알이 알고 계시나이다.
주님, 제 삶 속에 내재하는 충격과 고난을 아시나이다.

아버지, 오늘 당신께 청하나이다.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주시어
당신 성령이 제 위에 내리게 하소서.
당신의 구원적인 사랑이 지닌 뜨거움이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흘러가게 해 주소서.
지친 마음을 일으키시고 상처들을 껴매시는 주님,
이 시간 제 몸과 영혼과 모든 내면들을 치유하소서.

주님이신 예수님,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 위로 하신 것처럼,
제 안으로 들어오소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시어,
평화를 주시고 사랑으로 채우소서.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마음을 치유하소서.

주님이신 예수님, 당신은 저희가 청할 때
거절하지 않으심을 알고 있나이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당신께 청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우리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함께 청하나이다.
제 마음을 변화시켜주시고 자비롭고,
상냥한 마음, 착한 의지로
가득한 새로운 마음을 주소서.

지복의 영이 제 위에 내리게 하시어
가족들과 형제,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에서 충격이나 고통 없이
하느님을 만나고 알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 아버지, 오늘 제 삶 안에서 당신이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드리나이다.
저를 치유하시고 해방하시며 모든 사슬로부터
풀어주시어 제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
저의 마음을 다한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령이시여, 믿음과 사랑을 제 마음에
심어주셨기에 감사드리나이다.
하나이시며 삼위이신 하느님,
당신은 어찌 이리 크시오니까.

오, 주님, 영원히 영광과 찬양받으소서.
아멘.
영광송 **M**

매일 마음을 다한 로사리오기도에서 발췌.
남기옥 역 살림출판사, 2005. Itay.

메주고리예는 인류 역사상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개입이며 관여이다

이탈리아 주교회의 일간지인 아베니레 (Avenire)

교황님이 바라보는 메주고리예

지난 10월(2005) 이탈리아 주교회의의 일간지인 아베니레 (Avenire)에 메주고리예 순례에 대한 두 가지 기사가 실렸다. 그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하느님의 어머니의 발현에 긍정적인 빛을 던지는 내용이었다. 그 신문의 10월 15일자 기사에는 알렉산드로 포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그는 시에나 대학의 라틴 문학 교수이며, 이탈리아의 유명한 저술가인 디리오 포의 조카이다. 신문 한 면을 차지한 인터뷰에서 그는 메주고리예를 방문한 후 회개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흘간의 메주고리예 방문은 내게 새롭고 조용한 확신과 또 다른 평화로 내적 본질을 마련해주었다." 이탈리아 주교회의의 공식 기관지가 메주고리예 사건에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또한 교황님의 오랜 친구이며, 50년째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파벨 호닐리카 주교에게, 교황님은 과연 메주고리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질문 : 그 후 교황님과 메주고리예에 대해 또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가?

파벨 호닐리카 주교 : 메주고리예에 관해 두 번 얘기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발현을 목격한 어린이들을 조사했던 마이란드의 의사회가 교황님을 만나러 카스텔 간돌포에 왔는데 그 중의 한 의사가 모스타르 교구의 주교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교황님은 한동안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가 그 지역의 주교인 이상 여러분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 일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과 처신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하느님 앞에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생각, 즉 하느님께 대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메주고리예

에서 기도와 단식과 성체성사를 통해 이러한 마음들을 새로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주고리예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명백한 그분의 증언이었습니다. 나는 교황님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발현 초기에 목격 증인들을 조사했던 위원회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없다'고 천명했지만 교황님은 메주고리예에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래 전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질문 : 메주고리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거짓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파벨 호닐리카 주교 : 몇 년 전에 독일의 마리아 발현지인 마리엔프리트에서 젊은이들의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나도 그곳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주교님, 메주고리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악마의 장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회 신부입니다. 성 이냐시오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인간적, 악마적의 세 가지 원인을 가지고 그 일을 성찰한다면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껏 정상적인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해마다 수만 명씩 하느님과 화해하기 위해 메주고리예를 찾아 옵니다. 메주고리예는 이 세상의 고해소라고 불립니다. 루르드나 파티마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해를 하러 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고해성사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제는 죄인에게 악마로부터 벗어났다고 말하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줍니다. 분명 사탄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악마가 사람들을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려고 죄를 고백하도록 사람들을 고해소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

교회의 침묵은 메주고리예를 승인한다는 좋은 표시입니다

기를 들은 기자는 메주고리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간의 눈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질문 : 메주고리예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 최근 입장은 어떤지요?

파벨 호닐리카 주교 : 그 동안 수 많은 사람들이 메주고리예를 순례했습니다. (1994년에서 2004년까지 천백만 개의 성체가 분배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교회가 정말로 믿게 되면, 교회는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은 메주고리예를 승인한다는 좋은 표시입니다. 교회와 사람들은 해마다 얼마나 많은 사제들이 메주고리예에서 미사를 거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사제들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믿을 교리에 반하는 것을 메시지에서 발견했다면 그들은 메주고리예를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열리는 법입니다.

질문 : 메주고리예에서 주교님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은 어떠셨는지요?

파벨 호닐리카 주교 : 나는 그 당시 발현 목격 증인들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나는 그들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전에 파티마에서 루치아 수녀와 주교를 알게 되었을 때처럼, 나는 메주고리예의 신비 속에서 개인적으로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몹시 기뻐고, 메주고리예에 그렇게도 가까이 동참할 수 있다는 특권의식 같은 걸 느꼈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해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나 자신을 메주고리예 대가족의 일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발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 세상의 멸망과 묵시록을 동시에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에서 종종 말해지는 것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도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언은 그 예언이 언제 성취될지 정확한 시간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 재림이 있을지, 언제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지 사람의 아들은 알지 못한다고,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전에 파티마에 대해 말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메주고리예는 인류 역사상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개입이며 관여입니다.'

M

(독일 잡지 'Pur'에서)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성체를 경배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대사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찬미와 기도를 드립시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은총과 치유의 성 시간

매월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성모 신심 미사 및 성시간

장소 및 문의 : 서울 목수동 성당 (02-2297-2038)

신경남 신부님의 주례로 묵주 기도와 거룩한 미사, 성체 강복 및 치유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을 선택하세요

(발현목격자 미리아나의 증언 -4-)

미리아나는 6명의 발현 목격자중의 한 사람이며 1982년 12월 성탄절에 성모님으로부터 정화의 시기에 이 세상에 일어날 10 가지의 비밀을 받고 이제 매일 발현은 끝나게 되었다. 성모님께서서는 매년 그녀의 생일인 3월 18일에 오시겠다고 하셨으나, 그녀가 미래에 일어날 10가지 비밀을 알고 몹시 고통스러워하자, 현재까지 매달 2일에 발현하시어 위로와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다. 미리아나는 특별히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다.

- 편집자 주 -

질문 :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그래도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렇지요?

미리아나 : 나의 견해가 아닌 오직 하느님의 뜻만이 가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되지요. 기도할 때는 언제나 "사랑하는 하느님, 나의 뜻이 아니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말하세요. 복되신 성모님께서 고통 받는 당신의 아드님을 보여 주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그분께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질문 : 예수님을 위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미리아나 : 우리를 위한 뜻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을 다해 하느님이신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 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질문 : 어떻게 십자가가 하느님의 뜻일 수 있느냐?

미리아나 :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장소와 모든 사물들을 사랑하시기에 고통을 받으시고 그들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까지도 침묵하시며 죽으셨

습니다. 모든 자녀들을 위한 순명과 사랑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헤드리셨어요.

질문 : 왜 예수님께서 그런 수난을 받으셨을까요?

미리아나 : 모든 죄들을 예수님 혼자 지셨던 것입니다.

질문 : 우리들로부터 박해와 모독을 받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셨나요?

미리아나 : 하느님의 자녀들이 서로 박해하고 모독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것은 죄입니다. 박해와 모독이 있을 때는 언제나 사탄이 작용한 것입니다.

질문 : 미리아나,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고통과 죽음보다도 더 큰 힘이 있겠군요 그렇지요?

미리아나 :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지금도 처음과 꼭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질문 : 미리아나,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고 계시군요?

미리아나 : 하느님은 사랑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복되신 성모님께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막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 당신은 기도와 단식이 사탄의 세력을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또 기도와 단식은 믿지 않는 이들을 회개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미리아나 : 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 달라고 하느님께 기도 할테니까요.

질문 :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탄은 없다고, 복되신 성모님도 없고, 하느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미리야나: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걸 내가 자라온 곳을 보아서도 알 수 있지요. 사라예보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하느님이 없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도시입니다.

질문: 그렇게 하느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회개하고 변화될까요?

미리야나: 지금 메주고리에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질문: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까요? 혹은 그들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미리야나: 글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복되신 성모

님께 여쭙어 보시죠.

질문: 미리야나, 당신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닥치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미리야나: 복되신 성모님께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 자신도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시죠. 성모님은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느님 한 분뿐입니다. M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Visions of The Children/ 어린이들이 본 메주고리에의 성모마리아에서 발췌 -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이 음악에는 성모님과 함께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흠송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성시간 노래와 음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노래와 음악들이 간단한 가사와 짧고 반복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져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흠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과 단체 성시간, 그리고 각종 피정과 교육시 유용한 음악 자료로 활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과 평화의 모후이신 우리의 어머니 복되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 신부 신경남 스테파노 -



번역/ 신경남신부



- 옥수동 성당의 은혜로운 성시간 DVD, 비디오, CD.
-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CD
- 메주고리에 서적 보급
- 슬라브코 신부님의 책 '성시간' 마음을 다해 내 아들을 흠송하여라'
- 판매 수익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구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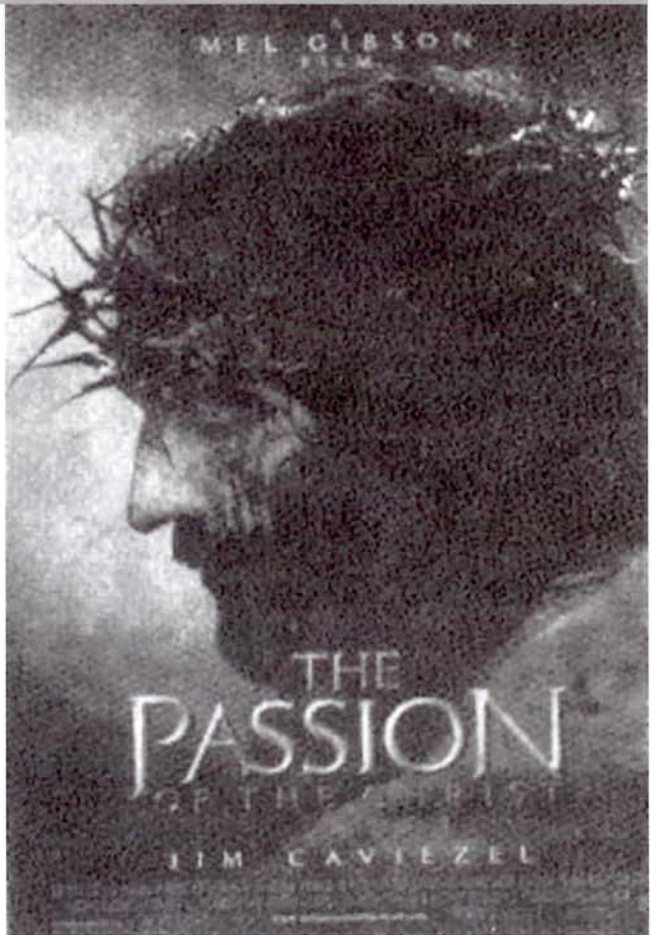
- 미국: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성 바오로 서원 (714-638-3855) 평화의 모후 성물센터 (323-730-1499)
- 한국: 노마리노 (010-731-0-9678), 전국 성바오로 딸 및 성바오로 서점, 해화동 가톨릭 서원 (02-745-8898)
- 캐나다: 이 테레사 (403-288-0469),

메우고리예의 가장 큰 열매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The Passion of The Christ)"

성모님께서서는 25년 동안 메우고리예에 발현하시어 그곳을 다녀 간 순례자들의 삶을 변화시켜주시고 수 없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었다. 그리고 그 열매중의 가장 큰 열매의 하나로 만들어진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The Passion of The Christ)"는 과장이 없는 최고의 성서적 묘사로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일생을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재현시키는데 성공했다. 평론가들은 "영화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The Passion of The Christ)'가 표현한 예수님의 생애와 수난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화 중에 가장 위대한 영화로 손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미국에서 약 4,000여 곳의 극장에서 재의 수요일에 개봉되었던 이 영화는 기록적인 숫자의 관객들이 동원되었다. 본 영화는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 온 일생을 섬세하고 뛰어난 예술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한 훌륭한 기록을 역사에 남겼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아버지께 순명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모든 고뇌를 현실감 있게 보여주었다. 말씀이 육화된 예수님은 우리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 때문에 '아버



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마르 14,32-42 ; 루카 22,39-46) 라고 피땀을 흘리며 갈바리아 산에서 부르짖으셔야 했던 것이다.

이 영화에서 그리스도의 역을 맡은 33세의 짐 카비에젤은 메우고리예의 복되신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메우고리예 본당의 마리오 내조빅 신부에게 자신이 받은 은총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메우고리예 성모님은 제가 혼신을 다해 예수님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의 아내 케리는 짐 카비에젤이 메우고리예의 목격증인인 이반 드라기체비치를 만나보도록 용기를 주었다. 이반에게 성모님의 발현이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짐 카비에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 "성모님, 당신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에 함께 계시다면 제가 해야 할 당신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비추어주십시오.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앞으로 계속해서 저를 당신의 것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즉시 부족함이 없는 깊은 평화를 마음 깊이

느꼈다. 짐은 "그날은 내 생애에 잊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날들 중의 하나였다." 라고 회상했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짐은 이반 드라기체비치와 그의 아내 로라인이 자신에게 준 예수님이 돌아 가신 십자가의 특별한 유품 조각을 자신의 주머니 속에 항상 소중하게 지니고 있었다. 짐 카비에젤이 이 영화의 감독인 멜 김슨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아직도 이 영화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내가 당신이었다면 나는 절대로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자 멜 김슨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모두 다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고 가든지, 아니면 그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부서지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짐 카비에젤은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예수님의 영화이지만 더불어 성모 마리아의 영화라고 불렀다. 이 영화는 2002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촬영하기 시작하여 2003년 5월 13일 파티마의 성모 축일에 촬영을 마쳤다. 짐 카비에젤은 촬영을 시작 하기 전에 항상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통한 묵상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한다. "나는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를 늘 손에 들고 다니며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일 나의 손에 묵주가 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가 만들어지는 동안 짐에게는 대단히 많은 어려운 고통들이 있었다. 매를 맞는 장면에서 있었던 우연한 사고는 그의 등에는 14인치 상처 자국을 남겼으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어깨가 탈골 되었다. 골고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촬영할 때는 혼자서만 5주일이나 걸렸으며 더구나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는 숨을 거의 쉴 수가 없었다. 운동선수들처럼 긴장했던 그는 극심한 추위와 구역질에 시달리기도 했고 진짜 번개 불에 의해 충격을 받기도 했다. 그는 등장 인물 중의 한 사람인 론 핸드리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면서 배운 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했다. 짐 카비에젤은 이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주는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어주는 불꽃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도록 알려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함께 [희망의 문턱을 넘어서]라는 책의 공동 저자인 빅토리오 메소리는 이 영화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이 영화에서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체 성사 때의 성변화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는 목소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삶에 보편성을 띠고 있는 참된 가톨릭 기본 교리를 깊이 심어주는 축복을 주고 있다" 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많은 부분을 성모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이 영화에서 교회의 모든 자녀들에게 교황의 가르침과 가톨릭 교회의 교권을 선포하도록 중개하신다.

디트로이트의 테리 로렌은 이 영화에서 작곡가 요한 텡네이는 마리아를 위한 주제 음악을 작곡할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테리 로렌은 마리아를 위한 주제 음악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텡네이의 말을 빌려서 전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었던 나는 마침내 절망 속에서 마리아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바로 그때 성모님께서는 나의 마음속에 마치 자장가와 같은 완벽한 서정시 한 편을 떠올려 주시는 것으로 응답 해주셨습니다. 나의 어린 아가야 울지 말아라. 네가 넘어지면 내가 너를 요람에 넣어 달래 줄테니... 우리가 그 장면에 음악을 넣고 처음 들었을 때 멜 김슨도 울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음악에 대한 영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물어보는 멜 김슨에게 나는 이 음악은 하늘이 성모님을 통해 주신 믿을 수 없는 선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날 이 영화는 2004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에 비추어는 "빛의 물결"을 여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 짐 카비에젤은 이 영화

는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통하여 이루신 승리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며 지금은 "강렬한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말한다. 그렇다! 그분은 참으로 이 세상의 빛이시다. **M**



멜김슨과 짐 카비에젤

The Network News
04년 4월호에서 발췌 번역



다락방에서 쏟아진 은총

김혜경

1982년 제가 순천 성 가롤로 병원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해질녘에 성모상 앞에서 성가를 부르며 묵주기도를 바치시는 수녀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개신교 신자였던 저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이상하게도 가톨릭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저는 광주 지산동 성당에서 교리를 배우기 시작했으나 여러 사정이 생겨 영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바치는 수녀님들을 통해 나를 부르셨다는 걸 느끼고 성모님에 대하여 배우려 했다면 좋았을텐데... 사실 그때에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었습니다. 그 후 10년 간 영세도 안 받고 성당을 다니는 등 마는 등 했습니다.

개신교 환경에서 자란 저에겐 항상 성모님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성모상을 향해 인사를 올리는 신자들에게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엔 영세를 받고 싶다는 갈망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1992년에 다시 교리를 시작하여 광주 '명상의 집'에서 대 피정을 끝내고 거기 계시는 예수 고난회 신부님의 권유로 영세를 받게 되었고, 제 두 아이도 첫 영성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거부감 없이 3년째 신자생활을 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직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당혹스

럽고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수술이 아주 잘 됐다고 해서 저는 다시 일상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신약성서를 필사하기 시작했지만 예수님께서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몰랐고, 또 건강을 되찾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도 드리지 못한 채 현대의학의 탁월함만 믿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수술 부위에 통증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CT촬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진통제만 먹으며 지냈으나 이것도 차도가 없어 여러 부위를 정밀 조사한 결과 척추에 남아 있던 암세포가 발견되어 3개의 척추를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뒤로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잠시도 앉아 있지 못하고 누워서 밥을 받아먹어야 했습니다. 주님께 제발 얼른 데려가시라는 기도만 입에 달고 침대에 묶여 지내던 중 콩팥까지 망가져 양쪽 콩팥에 호스를 꽂고 살게 됐습니다. 이미 많은 신경들이 잘려버린 뒤라 매일 단말마의 고통 때문에 마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심해진 고통 때문에 하루에 마약 주사를 24차례나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자매가 찾아와 다락방 기도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누구와 만나는 것도 싫었고, 본래 성모 신심이 없던 터라 그 자매의 권유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게 무안을 당하고 돌아가는 자매님 뒷모습을 보면서 '나를 도와주려고 찾아왔는데' 너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영적으로 저를 돌봐주시던 신부님께 상의를 드렸더니 그 자매의 간곡한 성의를 봐서 3개월만이라도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껏 성모상을 향해 고개 한번 숙인 적이 없던 저는 다른 본당의 어느 자매와 함께 다락방 기도를 시작해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입원해 있을 때에는 전화로 성모님의 메시지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의 내적 정화를 위해서 성모님의 원의에 따르기 위해 성당 유아방에 누워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를 5개월간 봉헌하였고 예전에는 보지 않던 고해 성사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 속에서 하루하루 저를 지탱해 주는 것은 그 자매와 하는 다락방 기도입니다. 다락방 기도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잠시나마 통증을 잊게 해주는, 그래서 제가 목을 빼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하느님의 섭리와 성모님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과 몸을 깨끗이하며 지낸다고 했지만, 마약에 찌들어 폐인이 다 돼가는 제 모습을 보고는 동료 의사들과 가족들이 정신병원에라도 입원을 시켜 주사를 끊게 해야 한다고 계획을 세웠나 봅니다. 그런데 다락방 기도를 해나가던 중 정말 놀랍게도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락방 기도의 은혜 안에서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절대 못 끊는다고던 마약을 입원하지 않고 끊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해 거듭거듭 확인하는 것이

었습니다. 개신교 신자 친구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제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며 옛날의 제가 아닌 새로운 저의 모습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단말마의 고통과 번민, 돌볼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에서 빠져 있던 제가 다락방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지켜보던 부모님은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요한과 요안나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메주고리예를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7일간 온 힘을 다해 기도해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출발 당일이 돼도 몸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절망감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보다 하고 죽음을 떠올리며 고통스럽게 울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강물 같은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막달레나 마리아의 심정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울고 있는 막달레나 마리아의 등 뒤에서 주님이 "마리아!"하고 부르셨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와 평화로 가득했겠습니까! 저에겐 아직도 끊어야 할 애착과 집착의 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내 티없으신 당신의 성심에 봉헌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죽음을 눈앞에 둔 만신창이의 몸으로 주님과 성모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누가 뭐래도 다락방 기도 모임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M**

<catholicdigest.co.kr에서 퍼온 글>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1565 Brookside Road, Macungie, PA 18062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편집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지도신부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뉴욕대교구)
신경남 신부 (서울 옥수동 성당 주임)

자문위원단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윤종식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 마르타(선교학 박사)

편집부장 : 최성득

편집위원 : 장혜영, 양의현, 남지혜, 송시원,
남미자, 이규현

인쇄 : 미주가톨릭출판사, 영인문화 인쇄사

너희는 이 세상 땅 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하라.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예"는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말씀과 체험을 전해주는 좋은 선교도구입니다. 교회를 떠나 냉담 중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전해주세요. 또는 그분들의 주소를 선교회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미 국 : 남그레고리오 (610-366-9612)

캐나다 : 이준용 콜배 (403-288-0469)

한 국 : 노마리노 (010-7310-9678)

허안젤라 (017-785-3535)



성모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여정

황지일 로사

자신의 인생에 확고한 뜻을 세운다는 30대에 저는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재능도, 특별한 능력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나고 명석한 두뇌와 또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부러워하며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제 자신을 남들 앞에 드러내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유일하게 가장 자신있게 믿고 있었던 것은 저의 젊음이었습니다. 젊음이라는 큰 재산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돈 많고 잘 생긴 사람을 만나 결혼하겠다는 목표로 저를 외적으로 가꾸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당연히 외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지니게 되자 사탄은 나를 세상의 화려함과 어두운 곳으로 끌어들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꿈속에서는 뱀과 구더기 속에서 쫓겨 다니는 제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루 중에도 자기 만족과 욕구불만으로 인한 감정의 폭이 심해서 쉽게 즐거워하고 슬퍼하면서 속으로는 썩어 죽어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냉담하다가도 양심의 힘든 소리를 들을 때쯤이면 주님께서는 때 맞추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전에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 서원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주셨거든요. 그렇게 확인한 하느님의 사랑을 제가 세상의 잣대로, 개인적인 욕심으로 외면하였지만 하느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며 변함없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주님은 저의 괴로움을 아시고,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를 미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은 가톨릭 교인이고, 세례를 받았지만, 처음에는 성모 신심도 전혀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성모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주님과와의 서약도

깨고 세상이 좋다고 떠났지만 저는 개신교에서 성경말씀을 읽고 성경공부를 하였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던 사모님께서 탕자와 같이 모든 것을 소진 하고 돌아온 저를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터전으로 미국의 이모님 가정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돈을 벌어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한국을 떠나고자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준비들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내가 미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저의 인생에서 기적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계신 이모님 가정이 가톨릭이고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특별하다는 말을 듣고 가톨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신경남 신부님이 계시는 옥수동 성당의 성시간을 갔습니다. 그러나, 묵주기도와 미사를 하고, 성체를 모시는 장면과, 성시간 등이 저에게는 낯설기만 하고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저 졸립기만 하였지요. 그런 제가 성모신심이 가득한 곳으로 왔으니 어찌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이모님 가정은 저의 많은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미국 생활에 적응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도 예전의 악습은 고쳐지지 않았습니. 한국을 떠날 때의 대단한 결심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성모님이 발현하신다는 메우고리예를 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간 일행들은 세례도 받지 않은 자매가 성모님 발현장소인 메우고리예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며 성모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것이라고 무척 대견해 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면서도 성모님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 물론 저는 그곳에서 남들이 보았다는 하늘에서의 성체, 태양의 변화, 또는 맑은

하늘의 무지개나 발현증인들도 보지 못해서 기대한 만큼 실망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이렇게 성모님께서 계시는 그곳에서조차 변화되지 못하고 물과 기름같이 지내던 제 안에 작지만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야고보 성당의 미사와 성시간을 통해 이제껏 살아온 제 삶을 돌이켜 보고,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상처받은 저의 내면과 내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대해 주님께서 치유해 주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무책임하게 지낸 과거의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도와 달라고 두 손 모아 간청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삶을 어떻게 하면 보속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수녀가 되고자 뜻과 방법을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메주고리에에서 저에게 일어난 큰 기적은 성모님을 부정했던 제가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요조신부님을 뵈고 나서 더욱 견고해 졌습니다. 그분의 살아 온 삶과 희생, 말씀을 통해, 성모님은 우리들을 위해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요조신부님께 안수 기도를 받기 전, 저는 성모님을 저의 어머니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렬한 마음으로 저의 상처를 치유해달라는 기도를 바치는 순간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메주고리에에서 돌아온 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바람이 간절해졌고, 이곳 이모님의 도움으로 피정을 몇 번 다녀오면서 신앙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낮설게만 느껴졌던 가톨릭 교리와 미사를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고, 예전에 그렇게 가기 싫었던 교회를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성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나태함이나 경솔함 등의 묵은 습관들을 고치고자 손에 묵주를 꼭 쥐고 매일 9일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모님의 일을 하는 곳에 저를 머물게 하셔서,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저에게 많은 이적들의 소식을 접하게 하였고, 모범적인 성가정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성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만 받으려고 했던 저에게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모부님이 일을 할 수 있게 기반을 준비하시는 이모님의 모습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게끔 준비해 놓으시는 성모님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제가 못나 보이는 것 같아 저로서는 좀처럼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제 마음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이제는 저에게도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랑하는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보게 하였고, 주님과 새로운 서원기도를 이룰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물론 과거의 최악된 삶이 저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았던 한국에서의 삶이 떠오르면, 과거를 그리워하고 현실이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보고 싶어 금방이라도 한국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묵주를 손에 쥐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모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웃에게 희생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가득해 집니다. 도리어 희생하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서를 읽어 보면 예수님은 복음말씀 속에서 어찌면 그렇게도 지혜롭고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지, 어찌면 저에게 주시는 말들만 골라놓았는지, 감탄을 하게 됩니다. 20대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후회가 되는 것은, 제가 좀 더 어린 나이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저를 부르셨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못난 자를 더 사랑하시고 변화시켜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국생활을 하면서도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되며, 그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진리를 제가 단순하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부족한 제가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하면, 최악된 인간들을 향하여 엄마의 마음으로 중재하시는 성모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로 빚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모님! 저도 당신과 같이 순명하고, 당신과 같이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저의 소망이 성모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

마약중독자였던 아들과 그 아버지가 증언하는 메주고리에

다음은 7년 동안 마약 중독자였던 아들이 메주고리에에서 받은 치유와 26년 동안 냉담 중이던 그 아버지를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게 된 메주고리에의 체험담이다.

아들의 체험담

나는 7년 동안 마약에 중독된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떤 수녀님이 나에게 메주고리에에서 발현하시는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지만, 나는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 수녀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해 여름 나는 마약에 중독된 채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중독자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이자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그 수녀님은 다시 메주고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렇게 죽기는 싫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바닷가와 수영장, 테니스장과 디스코텍이 있으며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 바닷가 호텔에서 묵을 수 있다면 3일 정도는 메주고리에를 가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던 것들이 있는 바닷가의 호텔에서 며칠을 묵은 후에 가족들과 함께 메주고리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님과 나는 엘레나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나는 우연히 그녀와 30-40분쯤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지만 웬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그 때 나는 마약성분의 알약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에 나는 엘레나가 이끄는 기도그룹과 함께 십자가 산을 오르며 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연히 엘레나의 눈과 마주쳤을 때, 나는 그 눈이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메주고리를 떠나는 날, 나는 그 동안 살아 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큰 혼란을 느끼며 어린아이처럼 마구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원하던 바닷가의 디스코텍과 여자, 술, 이 모든 것이 있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머리카락이 곤두서게 되고 숨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짐을 꾸려서 메주고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로 나는 메

주고리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계속 이곳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외면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치유는 다시 찾은 신앙입니다. 지난 7년 동안 나는 마약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부모님들과 함께 수 많은 병원을 찾아 다녔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메주고리에에서 다시 찾은 믿음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7년 동안의 마약중독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마약을 끊을 때 있는 금단 현상도 전혀 없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고 물질만능 사회가 제시하는 마약이나 TV와 컴퓨터에 중독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다면,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하느님과 성모님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찬미의 노래를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모님은 메주고리에 기도회원들에게 하루 세 시간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그들만큼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루의 일과 중에 자주 성모송을 바칩니다. 단 1분이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모송을 바치며 조금씩 조금씩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작은 물방울 같이 모여서 기도의 향아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느님을 선택한다면 저에게 있었던 모든 체험들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느님은 24시간 하루 온종일 모든 것 안에서 현존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루의 모든 근심과 기쁨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하느님께 말씀 드리며,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큰 은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마음을 열고 메주고리를 찾아 오는 모든 분들은 놀라운 은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손을 펼치시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분명히 남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M**

아버지의 체험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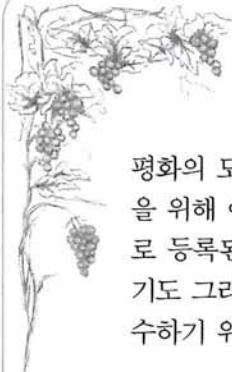
나는 메주고리에의 수 많은 사제들에게 고백성사를 받고자 줄을 서있는 이들과 함께 나도 모르게 고백성사를 보러 갔습니다. 그 당시 나는 26년 이상 냉담 중이였습니다. 고백성사를 받은 후에 신기하게도 전부터 마약에 중독된 아들 때문에 늘 근심하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후 저는 아들의 미래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변화된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걱정도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현재의 모든 것을 메주고리에의 성모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변화를 본 두 딸들도 메주고리에를 알고 싶어하며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석하고 기도하며 고백성사를 보고 성체를 모시고 있습니다. 예전의 우리가족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랑과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 했으나, 부모인 우리가 변화된 후부터 자신들에게도 가정이 있다는 것과 가족이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에서는 죽음이란 육체만이 떠나고 영혼은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나는 가끔 우리 가정에 대해 스스로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조금 전에 아베마리아 노래를 들으며 성모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심을 느끼고, 진심으로 감사드린 것과 같습니다. 만일 내가 하느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아들의 얼굴에서 하늘이 나에게 주시는 표징인 감미로운 미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들의 다른 사진에서 같은 미소를 찾아보고자 했으나 어떤 사진에도 그와 같은 미소는 없었습니다. 그 미소는 우리아들이 성모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쁨과 평화의 표시였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아들 마사모는 죽었음에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쉽게 화를 내는 참을성이 없는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메주고리에 순례에서 변화되어 돌아 왔을 때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성모님과 하느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생



활을 바꾸고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한다면 메주고리에를 체험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받은 은총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메주고리에에 갔을 때 청하기도 전에 내게 그 은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들에게는 큰 기적입니다. 언젠가 한 부모가 장애자인 아이를 들것에 실어서 십자가 산을 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비록 그 아이가 치유되지 않더라도 부모들이 자신들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평온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평화가 있을 때에는 죽음이 없고, 평화가 없다면 절망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느님을 믿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때 나는 마약에 중독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물질적 풍요로도 소유할 수 없었던 것들을 아들과 함께 메주고리에에서 찾았습니다. 마사모의 죽음이 비극이라고 생각하던 친구들과 이웃들은 자신들에게 평온함을 보여준 우리 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지금의 나는 나의 삶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가끔 시간을 내어 메주고리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비록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가까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M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에서 발췌〉



평화의 모후 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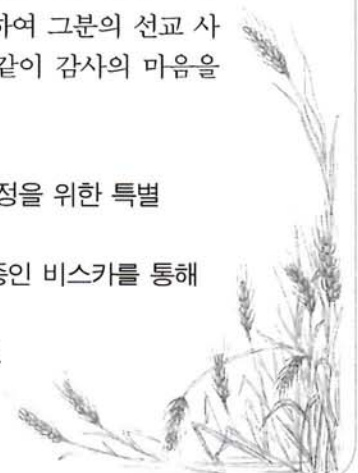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서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 가톨릭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사명은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회개, 신앙, 기도 그리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본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하고자 합니다.

- | | |
|---------------------------------|--------------------------------|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발행 및 무료보급 | 5.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 육성 및 운영 |
| 2. 신앙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에 순례 안내 | 6.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 3. 메주고리에 관련 서적 출판 및 보급 | 7. 메주고리에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
| 4.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전파를 위한 미디어물 제작 | 8. 기타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

본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선교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저희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를 보내드립니다.
2.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와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회원들과 회원 가정을 위한 특별 미사를 봉헌합니다.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을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를 통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5.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RS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평화의 모후 선교회)

1565 Brookside Road, Macungie, PA 18062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회원 가입서

영문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전화(H): _____ 전화(O): _____ 날짜: _____ 년 월 일

E-mail: _____ 소속 분당: _____

해당란에 V표 하여 주십시오. 월() 년() 기타() 금액() 회원번호()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동훈, 강창서, 권우주, 김갑식, 김경순, 김금성, 김동순, 김마테라, 김명주, 김명희, 김상원, 김세훈, 김소란, 김소영, 김시순, 김영보, 김영숙, 김율리안나, 김원희, 김 임, 김정미, 김정하, 김조안나, 김주희, 김태자, 김창성, 김혜숙, 김혜정, 김효정, 노마리아, 노종만, 류애영, 민현희, 박명식, 박세희, 박수잔, 박태천, 박청희, 박혜선, 백안셀모, 변애린, 서남숙, 서진희, 성문선, 손은하, 송테레사, 숙연스미스, 송영화, 신소연, 신안나, 스킨라, 아가다, 엄봉화, 연재희, 오루시아, 오창주, 옥선홍, 유광문, 유순희, 윤로사리아, 윤경만, 율리안나, 이 경, 이동우, 이명중, 이메리, 이베로니카, 이성광, 이순자, 이승연, 이명옥, 이엘리사벳, 이윤영, 이윤정, 이은경, 이은숙, 이은주, 이정은, 이정옥, 이준모, 이탁우, 이희운, 임경덕, 임상용, 임효경, 임베로니카, 장영희, 장숙영, 장혜정, 장지혜, 잔슨윤숙, 전득기, 전진숙, 전연규, 전연희, 전캐빈, 전현숙, 정광선, 조구연, 조안나, 조은숙, 지현남, 최정렬, 최루시아, 최경미, 최동원, 최석례, 최창선, 허정희, 홍경복, 홍성옥, 황혜정, Baker 옥순, Joon S. Hwang, 강 미카엘라 수녀님, 강알폰소 신부님
캐나다 캘거리, GA 콜롬보스 공동체후원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34호가 선교회의 사정으로 늦게 발행되어 죄송합니다.

선교회는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왔다" 고 말씀하신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교회를 위하여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34호 후원금	\$ 6,200
지출 (33호 소식지)	
소식지 인쇄, 발송 및 후원회원부투 인쇄	\$ 7,880.00
통신비	\$ 360.00
교통비	\$ 750.00
사무용품 및 기타 비용	\$ 620.00
• 지출 합계	\$ 9,610.00
• 34호 부족금	- \$3,410.00



기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는 믿음을 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가지가 줄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듯이 말라버릴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순결한 마음입니다. 순결한 마음은 자유롭게 사랑합니다.

일치는 기도와 겸손과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가치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가치와 비례합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 믿음의 열매는 사랑, 사랑의 열매는 봉사, 봉사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거룩하게 되십시오. 우리 모두는 거룩하게 될 능력이 있으며, 그 비결은 기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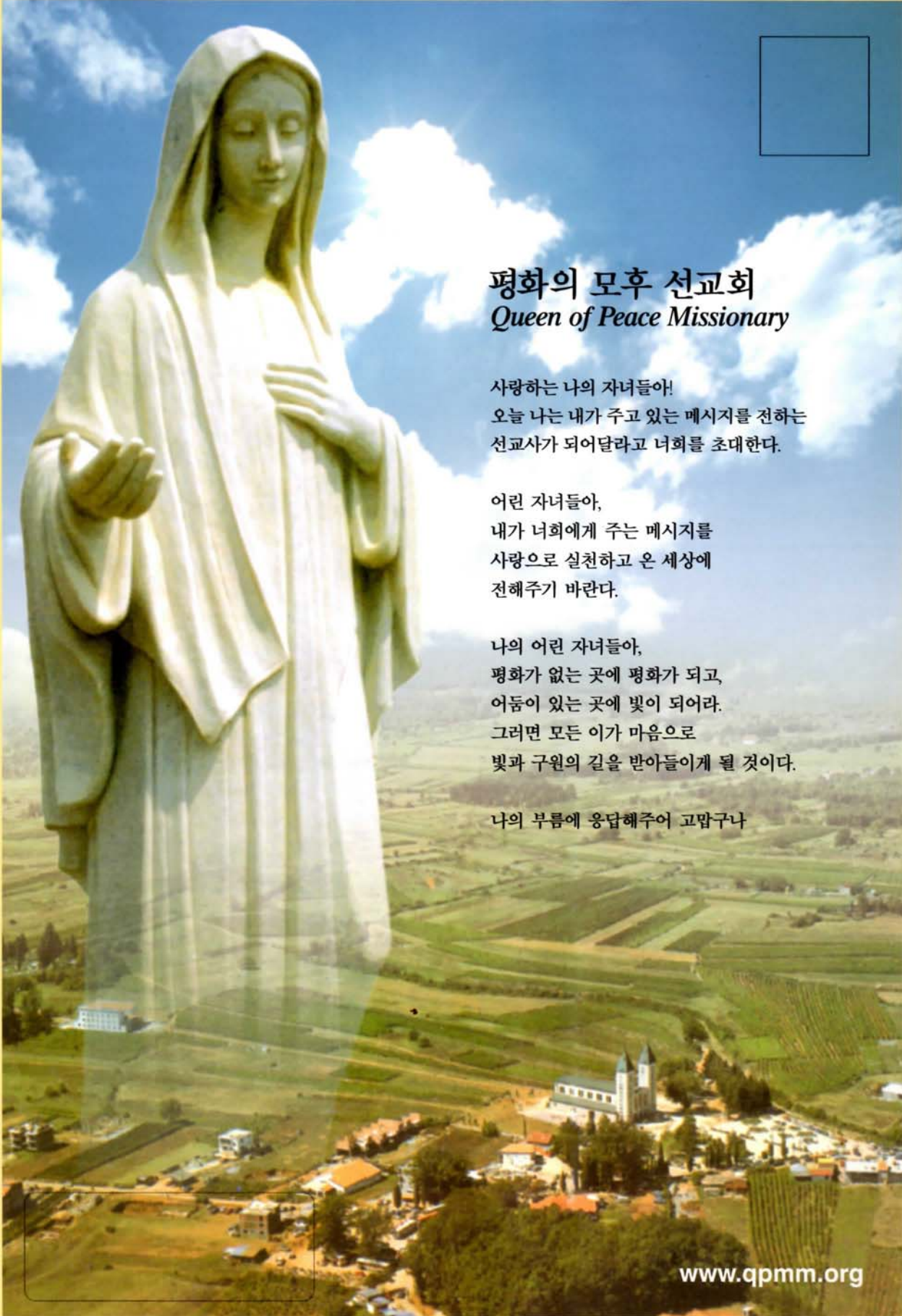
여러분이 기도할 줄 안다면, 기도를 사랑하게 되겠지요.

기도를 사랑한다면, 기도를 잘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소중한하고 힘있는 무기라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온 세상에 퍼뜨립시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발체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y*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내가 주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너희를 초대한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사랑으로 실천하고 온 세상에
전해주시기 바란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이가 마음으로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www.qpmm.org

USA

남 그레고리오 (Gregory Nam)

1565 Brookside Road, Macungie, PA 18062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E-mail : gregorynam@hotmail.com

KOREA

최성득 그레고리오

서울시 성동구 옥수 1동 515-1 B1
Tel. 02-2281-3236 / Fax. 02-2281-3246
E-mail : soulbassmaster@hotmail.com

CANADA

이준용 클레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